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2021. 05. 16. (나해) 제2268호

대구주보



비산성당
2021. 4.
15. 4.
+ B E R
n a r d

비산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에페 1,17-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6,15-20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하늘로 오르는 방법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사장 | 이상재 가스톨 신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라는 노래가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에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다 영양실조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데, 하늘로 오르는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신을 신고 팔짝 뛰어보면 관절통 하늘, 신경통 하늘이 펼쳐질까 걱정입니다.

하늘은...? 지구 표면, 땅 위쪽은 모두 하늘입니다. 발바닥 위쪽..., 발목도 하늘에, 무릎도 하늘에, 머리도 당연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지만, 하느님 나라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믿음 강한 귀부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귀부인이 ‘여왕님은 저희 집을 방문한 최고의 손님’이라며 집 안으로 모시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실망하며 “이 댁을 방문한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셨던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귀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집의 손님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저희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늘로 오르는 방법은 하느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에페 4,1-3 참조)

‘말라버린 식빵을 촉촉한 식빵 사이에 두면... 다시 촉촉해집니다.’ **필문**



“와서 보시오” (요한 1,46)

사람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만나 소통하기

저는 올해 담화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와서 보아라.”라는 초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언론, 인터넷, 교회의 일상적 설교, 정치적 사회적 소통 등 투명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소통에 영감이 됩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복음서를 쓸 때 그가 사건 현장에 직접 있었음을 밝히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준 체험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서에는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나타나엘에게 필립보는 다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직접 본 나타나엘은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되는 방법이며,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앎입니다.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작성한 보도는, 만들어진 보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방관자가 될 뿐입니다. 언론은 누구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박해받는 이들의 아픔과 수많은 억압과 불의를 알게 됩니다. 지금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언론이 부유한 나라들의 시각으로만 보도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유용한 도구로서 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되는 큰 영향력을 지닌 도구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는 것, 곧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리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 듣는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무엇도 직접 보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 체험하여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일 때, 체험과 대화로 우리를 이끌어 들일 때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사도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를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되살아 납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황, 미얀마의 책임자들이 평화의 길을 따르길 기도

2021년 5월 2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5월 대중신심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2일 부활 제5주일 부활 삼중기도 후 올하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기원하기 위해 중요한 마리아 성지들에서 마라톤 기도”를 드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지난 5월 1일 저녁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제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 교회와 함께 매일 묵주기도 중에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려울 때 엄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께서 미얀마의 모든 책임자들의 마음에 이야기하시길 청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남, 화해, 평화의 길을 따르는 용기를 찾게 되길 청합니다.”

교황, 메론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

교황은 지난 4월 30일 발생한 이스라엘 메론산 사고에 대해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45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다. 교황은 “이 비극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율리우스력으로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은 교회들에 축하 인사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방 정교회, 동방(전례) 및 라틴(전례) 가톨릭교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했다. (그들은 율리우스력으로 따라 오늘(5월 2일)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한다. 교황은 그들에게 깊은 축하 인사를 보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과 평화를 가득 내려주시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축하 드립니다!”

에르난데스 시스네로스 복자의 모범

교황은 지난 4월 30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복된 호세 그레고리오 에르난데스 시스네로스 (José Gregorio Hernández Cisneros) 새 복자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말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과학과 믿음이 충만한 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병든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복음적 사랑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영육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그의 모범이 우리를 돕길 바랍니다.”

메테르 협회를 격려,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에 인사

교황은 메테르 협회(Associazione Meter)가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인 아동들을 위한 헌신을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끝으로 25년 전 키아라 루빅이 설립한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을 따르는 이들에게 “좋은 정책을 위한 봉사에 수고해 주기 바란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고향을 알 수 없는 김천애(金千愛) 안드레아는 '전라도의 사도'로 유명한 유허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 그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당시 유허검의 집은 전주의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었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안드레아는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고결한 마음으로 신자의 본분을 지켜나갔다. 그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으며, 교리의 가르침을 굳게 지킬 줄도 알았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전라도에서는 아우구스티노가 가장 먼저 체포되었다. 그 뒤를 이어 김천애 안드레아도 그의 맏아들인 유중철 요한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압송되었다.

이내 감영에서는 안드레아에게 문초와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와 밀고를 강요하였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 해 7월경 동료들과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안드레아의 신앙은 형조에서도 한결같았다. 그는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십계명을 버릴 수는 없으며, 한 번 죽는 것인 만큼 죽음을 달게 받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전주로 압송되어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8월 27일(음력 7월 19일) 혹은 28일로,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그가 형조에서 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김천애 안드레아
(1760 ~ 1801년)

“천주교는 큰 도리요 지극히 훌륭한 행위로,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 이미 뺏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저에게) 형벌과 죽음은 영예로운 일이니, 어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범한 죄를 돌이켜보 건대, 오직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 대축일

5주년 기념 전야 음악회

J. S. 바흐 :

칸타타 BWV 194

“그토록 기다리던 축일”

신포니아 BWV 29

오보 협주곡 BWV 1060r

W. A. 모차르트 “알렐루야” KV165

일시 : 5. 21(금) 오후 7:30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지휘 : 요한 로즈

주교좌 범어대성당 솔로리스트들과 오르가니스트들

가톨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앙상블과 목관 앙상블

문의 : 053)790-1300 beomeo-concert.com 전석 초대

주최·주관 : 주교좌 범어대성당

※ 체온 측정,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8. 말씀에 비추어 보기 7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계명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주는 것을 당신 제자의 분명한 표징으로 제시하셨습니다.(마태 22,39; 요한 13,34 참조) 사랑은 또한 자비와 용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요한 8,1-11 참조) 그리스도인 혼인과 가정생활의 핵심인 사랑의 차원에서 또 다른 덕목이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바로 혼란스럽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종종 무시되는 온유함입니다. 시편 131(130)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섬세하고 따스한 친밀함을 엿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친밀함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 떼 아기 같습니다.”(시편 131(130), 2)



우리들의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17일(월) 11:00 계산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2일(토) 11:00 순례자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5.18(화)~19(수)
시니어 피정: 5.25(화)~26(수)
문의: (054)382-0091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봉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대구가톨릭대학교 개교 107주년 기념 전시회

故 박형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기증유물 특별전

신부님의 선물展 (A gift from the Priest)

일시 : 2021. 5. 14(금) ~ 2022. 2. 28(월)

장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박물관 김조자 기획전시실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박물관
DAEGU CATHOLIC UNIVERSITY MUSEUM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하반기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와 같은 기존 신앙 체험 내용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일상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분량 준수)

기간 및 방법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개원 36년
달성피부과
피 부 과 전문의 아토피·만성피부·여드름
성형외과 전문의 눈물 지방·피지낭종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 서우태(루카)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 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

일월매트총판 | 대형 선공기
이동식어어컨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돌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원장 서만수 (루카)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진료문의: 216-7345

마스크(의약외품) | 100장
KF94(국 내 산) | 35,000원
비말 AD 덴탈 | 100장
10,000원
대표 장 종 화(분도)
분도상사 053-425-4701
010-3537-5559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익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행사 | 모임

5월 예비신학생 모임(고3·대학일반)

일시: 5.23(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45주년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돌잔치 미사

일시: 5.22(토) 20:00
장소: 대안성당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5.17(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문의: (010)2780-4535

교육 | 모집

가정특강_슬기로운 코로나 버티기

일시: 5.29(토) 14:0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선착순 150명) 또는 비대면
강사: 김명세 박사
마감: 5.21(금)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모집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원하시는 신자(암 또는 아토피환자)와 일반인이 머물러 갈 수 있습니다.
지도: 박상호 신부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합창교실: 월, 목 14:00, 19:00
발성·성가교실: 화, 금 10:00, 14:00, 19:00 / 대구CEO합창단: 수 19:00
장소: 평생교육원(용산역 4번 출구)
문의: (010)3512-156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라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칼럼바, 문인화, 발성법, 우쿨렐레, 섬유공예, 오카리나, 정리수납전문가과정
신청: 254-6115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말씀테라피: 6.2(수) 14:00, 4주
영성고전읽기: 6.3(목) 14:00, 4주
영화 피정: 6.5(토) 14:00, 월 1회
상설고해소: 매주 화 14:00~15:00
문의: (010)6681-5185 사전예약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채용 | 안내

가톨릭피부과의원 진료 안내

58년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진료분야: 습진, 무좀, 아토피, 건선, 여드름, 탈모, 알러지, 레이저 시술 등
문의: 320-200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기철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8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천담병원 3층
청리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운창고·고추건조기
할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현 연세대 외과교수) 박중원(소시오)
안과전문 의 서재신(베드로)·장주현(비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3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 대표전화 | 1688-7667